

‘지구촌 최대 수영축제’ 준비 순항

‘지구촌 최대 수영축제’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 아래 분야별 준비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 등 한반도 대변혁의 시기에 발맞춰 북한선수단과 예술단 참가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다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막대한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에다 ‘문화광주’로서의 도시브랜드 제고 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총사업비 증액과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 개최국 스타 부재 등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대회 개막 1년을 앞두고 준비 상황과 기대 효과, 6년5개월 간의 발자취, 남은 과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세계수영대회 D-1년]



Fina
WORLD
CHAMPIONSHIPS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12일부터 8월18일까지 진행되며, 200여개국 선수와 임원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선수권대회는 7월12~28일 17일간,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대회는 7월29일~8월11일 14일 간 열린다.

선수권대회는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구, 하이다이빙, 오픈워터 등 6개 종목에 75개 경기가 치러진다.

‘수영의 꽃’인 경영과 다이빙은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아티스틱 수영은 영주체육관, 하이다이빙은 조선대 운동장 ‘수영 파라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는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각각 치러진다. 마스터즈대회는 참가자 나이(만 25세 이상, 수구는 30세 이상)를 5개 단위로 나눠 63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그동안 17차례 개최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후쿠오카(2001년)와 중국 상하이(2011년)에 이어 광주가 3번째 개최도시다. 하계·동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 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 세계 5대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5대 스포츠제전을 모두 치른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3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이 4번째다.

D-1년을 맞아 조직위원회 움직임도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 분주하다. 슬로건, 로고와 함께 마스코

200여개국 1만5000명...5대 스포츠제전 치룬 4번째 국가 키워드 ‘평화’·‘문화’...북한 선수단-예술단 참가 기대 경기장 시설·선수촌, 자원봉사·숙박 등 준비 상황 순항 저비용 고효율, 문화행사 다채 ‘문화광주’ 도시브랜드 ↑



국제수영연맹(FINA)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3월 광주를 찾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요 경기장을 둘러보고 있는 장면.

트는 ‘수리’와 ‘달이’로 광주의 랜드마크인 무등산과 영산강에서 평화롭게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을 의인화했다.

지난해 7월 국제수영연맹(FINA) 상진 깃발을 넘겨 받은 뒤 마스터 플랜과 로드맵, 경기시설계획 등 기본적인 플랜을 확정하고 세부적으로 SNS를 활용한 대회 홍보와 개·폐막식, 경기장 시설 인프라 확보, 경기진행 준비, 분야별 대회지원 계획 실행에 나섰던 행정력을 쏟아부었다고 있다.

특히 경기장의 경우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목표로 신설 대신 기존 시설 활용과 임시경기장 설치에 올인했다. 남부대 수영장은 FINA와 협의를 통해 관람석 규모를 당초 1만5000석에서 1만1000석으로 축소했다. 여수해양공원에 2000석 규모의 관람석과 운영실이 운영되고, 영주체육관(아티스틱)과

남부대 축구장(수구), 조선대 운동장(하이다이빙)에는 임시수조가 설치된다. 공사는 내년 4월 마무리된다.

총사업비는 운영비 1034억원과 시설비 582억원, 예비비 81억원 등 모두 1697억원으로 확정됐다. 인력 3단계 증원을 거쳐 3분부 6부 1담당관 17개팀 200여명으로 늘었다. 성공대회 주역이 될 자원봉사는 경기 진행과 통·번역, 의무도령 등 6개 분야 31개 직종에 걸쳐 선발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선수촌은 노후아파트인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15~25층 25개동, 1660가구가 건립돼 대회 기간 6500여명을 동시수용하게 된다. 공평률은 84%로 순조롭다. 수송지원 종합계획도 이달 안으로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스폰서십 마케팅, FINA 차원의 지원 방안 등도 논의중이다.

조직위는 특히, 최근 남북화해 기류 속에 스포츠·문화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광주대회에 북한선수단 참가와 이들을 위한 전지훈련지 제공, 내년 사전점검대회(테스트이벤트) 때 북한선수단 참가 등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다.

FINA측도 북한선수단 참가에 따른 제반 경비를 FINA 예산으로 특별지원하고 방송중계권 무상인도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북한 참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예술단 유치 위한 기구결성도 민선7기 출범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대회 참가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과 교통문제 ▲외국인 입맛에 맞는 먹거리 ▲광주~전남~전북을 잇는 호남관광과 전국 주요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준비중이다.

조직위는 문화행사전문위원회를 꾸렸고 개최도시로서의 정신과 대회 이념을 반영한 장기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행사 종합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오는 7일 조선대 열린음악회에 홀리우 마쿨리오에 FINA 회장과 이용섭 시장, 인기 가수와 시민 등 6000여명이 참석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보대사인 박태환·안세현 선수의 영상 메시지가 준비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대인·남광주 아시안 등지는 화려한 버스킹이 예정돼 있다.

신봉우 기자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3회말 시즌 16호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솔로포’ 추신수, 44경기 연속 출루...야출신 타자 최장 신기록

‘추추 트레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아시아 출신 선수 최장 연속 경기 출루 신기록을 작성했다.

추신수는 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시즌 16호 솔로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1회말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1-0으로 앞선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휴스턴 선발 케리 비갈쪽 높은 직구를 밀어쳐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려냈다.

44경기 연속 출루를 선보인 추신수는 스즈키 이치로가 보유한 아시아 출신 선수 최장 연속 경기 출루 기록(43경기)을 갈아치웠다.

또한 추신수는 구단 신기록 경신도 눈앞에 두고 있다. 구단 2위 기록을 작성한 추신수는 홀리우 프랑

코가 1993년 기록한 46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넘보고 있다.

현역 선수 최장 연속 출루는 조이 보트(신시내티 레즈)와 알버트 푸홀스(LA 에인절스)가 보유한 48경기다.

추신수는 4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안타를 만들어냈다. 추신수는 케리 폴의 96마일짜리 높은 직구를 받아쳐 투수 옆을 빠르게 지나가는 중전안타를 날렸다.

이후 안타는 없었다. 6회 무사 추신수는 1-0으로 앞선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휴스턴 선발 케리 비갈쪽 높은 직구를 밀어쳐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려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종전 0.286에서 0.289(32타수 93안타)로 높아졌다. 타점과 득점도 1개씩 보태 시즌 41타점, 51득점째를 기록했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분전에도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4-5로 패했다. 3연패를 당한 텍사스는 시즌 38승 49패를 기록해 여전히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뉴스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5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에서 2회초 득점을 올린 뒤 더그아웃에서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오타니, 부상 복귀 이후 첫 안타에 멀티히트

일본의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4·LA 에인절스)가 부상 복귀 이후 첫 안타에 멀티히트까지 때려냈다.

오타니는 5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에서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했다.

오른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부상으로 지난달 9일 부상자명단(DL)에 오른 오타니는 일단 타자로는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지난 4일 복귀했다.

오타니가 경기에 나선 것은 6월 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1실점을 기록한 이후 약 한 달 만이었다.

첫 경기였던 전날 시애틀전에서 오타니는 세 차례 삼진으로 물러나는 등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이날 첫 안타에 이어 멀티히트 경기를 완성하며 타격감을 조율한 모습을 보였다. 오

타니의 시즌 타율은 0.280에서 0.287(122타수 35안타)로 올라갔다.

오타니는 2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 들어선 첫 타석에서 포수 타격방해로 출루했다. 오타니는 후속타자 루이스 발부에나가 적시 2루타를 때려내 선취 득점을 올렸다.

안타가 나온 것은 두 번째 타석이었다. 4회초 무사 2루의 찬스에서 오타니는 상대 우완 선발 투수 마이클 리크의 초구 심구를 노려쳐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발부에나의 안타 때 2루로 나아간 오타니는 풀 칼흔의 안타로 홈을 밟았다.

오타니는 7회 다시 방망이를 힘차게 들었다. 7회초 1사 후 들어선 타석에서 상대 우완 볼펜 투수 케인 브래드포드를 상대한 오타니는 2구째 시속 92.5마일(약 148.9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노려쳐 우측 외야로 빠져나가는 2루타를 때려냈다.

에인절스는 시애틀을 7-4로 물리쳤다. 2연패에서 벗어난 에인절스는 44승(43패)을 수확했다.

조영택 사무총장 “준비 착착...북한 참가 기대”

“준비는 매우 순조롭고, 북한선수단 참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 기대 또한 큼니다.” 조영택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내년 세계수영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아시아 문화·스포츠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과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저비용 고효율 경제대회, 친환경 대회로서의 ‘광주형 이정표’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조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개막일까지 6박 1년 남았다. 준비 상황은.

“그동안 마스터플랜, 로드맵, 시설계획 등 기본플랜을 확정했다. 경기 진행 준비, 개·폐막식, 자원봉사자 양성, 수송·숙박·식음료 등 각 분야별 실행에 중점을 두고 빈틈없이 준비했다. 경기장 공사는 내년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중앙 정부를 방문해 대회 전반을 설명하고, 대회 불 조성과 총사업비 증액,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현안을 건의했다. 끝까지 순항할 것이다.”

▶북한선수단 참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동안 국제수영연맹(FINA) 집행부와 정부 등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4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스포츠계 UN총회’로 불리는 2018

스포츠 어코드’에서 국제스포츠단체인 ‘피스앤스포츠’와 북한선수단 참가를 비롯한 교류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무드가 정착되고 있는 만큼 북한참가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가길 계획이다. FINA측도 북한선수단 경비를 FINA 예산으로 특별 지원하고 방송중계권 무상인도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북한 참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보다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스포츠가 추구하고 있는 인류 평화의 정신을 광주정신과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슬로건을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로 정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광주에서 울려 퍼질 세계 인류 평화의 메

시지는 다른 어느 도시, 어느 나라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위한 노력은.

“경기장의 경우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목표로 신설 대신 기존 시설 활용과 임시경기장 설치에 올인했다. 남부대 수영장은 당초 1만 5000석인 관람석을 1만1000석으로 줄였다. 영주체육관(아티스틱), 남부대 축구장(수구), 조선대 운동장(하이다이빙)에는 임시수조가 설치된다. 선수촌도 도심 노후아파트인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건립했다.”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대회 개최로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광주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있고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도



열리고 있다. 세계 수영인들이 아시아 문화를 만끽하고 광주의 도시브랜드를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적 효과도 수조원으로 추산된다. 스포츠가 지향하고 있는 평화컨셉트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디어 노출 등 방송홍보가치가 커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빛을 광주를 알리고 스포츠 선진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감히 자신한다.”

▶광주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내년 수영대회는 올림픽, 월드컵에 버금가는 커다란 행사로 문화·스포츠도시,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지구촌에 알리는 흔치 않은 기회다.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정부, 광주시, 조직위 등 관계관이 혼연일체가 돼 광주대회가 성공리에 막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